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VOL 117. 겨울호



Dokdo,
Beautiful Island
of Korea.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2023 겨울호
VOL. 117

발행일 2023. 12.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종선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이상철
편집 주무관 서옥란
편집위원 농암초등학교 주무관 김수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주무관 김선옥
주소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홈페이지 www.gbe.kr
디자인/인쇄 탐디자인 054)854-5569



- www.gbe.kr/news
- www.instagram.com/gbe.gyo6
- blog.naver.com/2mcool
- www.facebook.com/gogogbe
- www.youtube.com/검색창 ▶ 맛쿨멋쿨TV
- 카카오톡 ▶ 경상북도교육청 검색 ▶ 채널 추가!

-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따뜻한경북교육소식지>는 www.gbe.kr/news(경북교육소식 ▶ 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오른쪽 지면 상단에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보이시아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무료 소식지(비매품)입니다.

표지 이야기 <손글씨로 채워 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우수작>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하여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글씨를 꾸며 보았습니다."

- 대구학남초등학교 3학년 3반 친구들 -

CONTENTS

○ 경북교육 꾸미기

- 04 아이들의 삶이 예술로 더욱 빛나길 응원해
- 06 365일 안전한 학교, 안심 아이 쉼터
- 08 눈과 입이 즐거운 급식 맛집, 급식솔랭

○ 교육현장 이야기

- 10 유, 초, 중, 고 교육현장 이야기

○ 경북아이 뽐내기

- 14 구미고 박시훈, 박소진, 전국체전 포환던지기 남, 여고부 동반 한국 신기록 수립
- 15 포항명도학교 역도 신동민, 한국 신기록 2개 세우며 3관왕 등극
- 16 계림고, 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 전국대회 금상 수상
- 17 옥계동부중, 전국스포츠클럽대회 피구 우승

○ 공감 더하기

- 18 영화 만들기 동아리로 세상을 보다
- 20 책이 주는 낭만적인 휴가
- 22 경북교육 톡파원 친구들 나와라
- 24 칭찬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생생정보 나누기

- 26 초 6학년을 위한 '중학교 가는 길'
- 28 중 3학년을 위한 '고등학교 가는 길'
- 30 겨울에 듣는 포근한 우리말 이야기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seokok7@gbe.kr

 054)805-3063



아이들의 **삶**이 **예술**로 더욱 **빛나**길 **응원**해

☆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예술

"우리가 시를 읽고 쓰는 이유는 시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정으로 가득 찬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이야.
의학, 법, 경영, 기술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지.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란다."

-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시의 이해' 수업 중 -

우리는 예술을 경험할 때 일상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면서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낀다. 어려서부터 음악, 미술 등으로 예술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아이들은 자신만의 미학과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은 오랜 시간 쌓아온 단단한 기초가 있을 때 비로소 찬란하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예술로 물들다

경북교육청은 11월 29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북 학교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를 열었다.

합창과 오케스트라, 거리 공연(버스킹), 댄스, 예술 체험 부스 운영, 작품전시 등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재능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공유하며 즐기기 위한 자리였다.

아이들의 표정은 꽤 진지하고 행복해 보인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많아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삶이 더욱 빛나길 응원한다.

365일 안전한 학교, 안심 아이 쉼터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 장소가 필요해

인덕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10년 전쯤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대 조정되었다. 조정된 학구의 학생들은 전교생의 80% 이상인 500여 명에 이른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하고 있다. 오랜 기간 운행해 온 통학버스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하교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혹한 속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승·하차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심 학생 맞이 공간 '안심 아이 쉼터'를 마련하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안심 학생 맞이 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1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덕초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16개 학교에 조성하였다. 인덕초등학교는 2023년 7월 안심 학생 맞이 공간인 '안심 아이 쉼터'를 마련하였다. 이 공간은 미세먼지, 강우, 된더위 등 기상 악화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기 공간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밀폐형 버스 내부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CCTV 등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기, 자동 조명 장치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춰 학생과 학부모들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65일 안전한 학교는 행복한 학교의 시작

안심 아이 쉼터는 배움터지킴이실 연계를 통한 학생 안전 사고 예방과 학교 교육활동 홍보를 통한 학생-학부모 소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5일 안전한 학교가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의 시작이 아닐까?





눈과 입이 즐거운 음식 맛집,

봉현초등학교 영양교사 김정희



“먹기도 전에 먼저 눈으로 반해 버리는 봉현초등학교 음식 품질~!”

봉현초등학교에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금식'이다. 봉현초등학교의 음식은 맛은 물론이고, 눈까지 즐거워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살아나는 것만 같다.

3월



입학시즌 한정메뉴
행운 가득 입학! 든든 & 힘찬 출발 웰컴 미역국

4월



봉현 시그니처 메뉴
눈으로 먼저 먹는 '새우 품은 부추전'

5월



경북교육청 채맛데이 특선 메뉴
계절의 여왕, 꽃향기 비빔밥

6월



짜장면 시키신 분~
배달보다 맛있는 쌀짜장면

7월



재료가 다했달
무더운 여름나기 SET메뉴, 전복 달백숙

8월



비주얼 짱, 영양 가득! 건강 등뽕!
색감으로 불사른 구운 야채

9월



요리의 달인, 봉헌 슈프 추천 메뉴
흰자에게 내어준 노른자 사랑

10월



쩐~쩐~쩐이야
대게 맛있는 대게살 볶음밥

11월



졸업 전 꼭! 맛뵈야 할 HIT 메뉴
제법 잘 말린 오징어

12월



먹으면 인사(Insider)되는 메뉴
관자가 되고픈 새송이

급식 게시판

☆ 봉현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마치 계절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알록달록한 색감과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한 건강한 식단들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고 침이 고이게 만든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식단들이 고급스러운 음식점에서나 나올듯한 모양새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에 맞춘 센스있는 식단으로 학생, 교직원들 모두에게 인기가. 물론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영양적으로도 균형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우수한 급식을 봉현초등학교에서만 알고 있

기엔 너무 아쉬워 '2023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우수식단 공모전'에도 참여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학교급식 홍보 UCC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청 학교급식의 질을 끌어 올리고 우수식단 발굴과 보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CHOOL NEWS



정성 가득 김장으로 든든한 겨울 준비해요

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진서)은 지난 11월 15일 겨울철 먹거리를 준비한 조상의 지혜로운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원아들은 유치원 텃밭에서 정성껏 심어 기른 배추와 무에 야무지게 양념을 묻혀 김치를 담갔다.

간식시간에는 폭 삶아낸 돼지고기 수육에 직접 만든 김장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한 김장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장 체험을 한 유아는 “저 김치 정말 잘 만들죠? 할머니 댁에서 김치 담글 때 이제 저도 같이할 거예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1학년 형님들과 함께하는 이동 동물원 체험

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문정숙)은 지난 11월 16일 유·초 이음 학기 운영 프로그램으로 1학년 형님들과 함께 강당에 설치된 이동 동물원 체험을 했다. 체험에 참여한 원아들은 친칠라를 머리에 올려 보고 붉은고리보아뱀을 목도리처럼 어깨에 올려 보기도 했다. 또 햄스터와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을 접하며 만져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원에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촉감과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하는 체험을 통해 원아들에게 동물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됐다.



사랑의 손뜨개 목도리로 따뜻한 손길 전해요

안동서부초등학교

안동서부초등학교(교장 김의식) 나누미 봉사단 학생들은 지난 11월 8일 서부 노인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사랑의 목도리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하나로 나누미 봉사단 12명 학생이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토요일에 모여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손가락으로 실뜨기하여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목도리를 만들었다.

이 기부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항상 토요일엔 늦잠을 잤었는데, 봉사활동을 한다는 생각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와 친구들과 함께 손뜨개 목도리를 만드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 보람됐던 것 같아요”라며 “많은 어르신이 우리가 직접 만든 선물을 받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고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다

한일여자중학교

한일여자중학교(교장 김현숙)는 지난 11월 10일 등굣길에 학생과 교직원이 대형 한반도 현수막에 직접 손으로 페인팅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는 평화·통일 음식 만들기, 통일 책갈피 만들기 등 그동안의 교육과정 성과물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소중한 경험을 몸소 체험하고 분단된 현실과 전쟁으로 위협받는 평화·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한일여중은 2018학년부터 교육과정 속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SCHOOL NEWS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사랑 나눔



장흥중학교

장흥중학교(교장 조성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11월 11일 포항 송도동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30명 학생이 독거 어르신 세 가정에 총 9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 접하는 새카만 연탄재가 피부와 옷에 묻기도 하고 연탄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의 미소와 격려에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봉사의 기쁨을 표현했다.

개령초 국제교류단,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 방문



개령초등학교

개령초등학교(교장 장준호)는 지난 2014년부터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와 국제교류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방문 교류 활동이 다시 시작됐다. 개령초 국제교류단 16명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현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상반기 온라인 공동수업을 하면서 만났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 전통문화, 농악, 체육 놀이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쳤다.

산림 분야 특성화고 우수 학생 해외 연수 떠나다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교장 윤정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카야마현 북쪽에 있는 마니와시에서 '산림 분야 특성화고 우수 학생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마니와시는 일본에서도 산촌 자본주의를 실천한 바이오매스 대표 도

시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목재 펄릿이라는 연료를 생산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는 선순환을 잘 실천하고 있다. 11명의 우수 학생은 목재의 생산에서 재활용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국내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민준 학생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해외 산림의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해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특히 폐목재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공정을 보니 우리나라도 여건을 고려해 시설이나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며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헌혈로 기적의 생명 나눔 실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박종진)는 지난 11월 13일 대한적십자로부터 창립 118주년 기념 혈액 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혈액 사업에 도움을 준 단체에 수여하는 상

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에서 헌혈 참여가 주춤할 때도 적극적인 혈액 나눔을 통해 혈액 수급에 큰 보탬이 됐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2020년도부터 학부모와 함께 희망하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 증서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헌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뜨거운 혈액을 나눔으로써 생명의 따뜻함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구미고 박시훈, 박소진, 전국체전 포환던지기 남, 여고부 동반 한국 신기록 수립

2023년 10월 15일~10월 18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포환던지기 종목에서 구미고등학교 1학년 박시훈 선수와 3학년 박소진 선수가 남, 여고부 동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쾌거를 거뒀다.

박소진 선수는 1992년에 수립된 여고부 한국 신기록(종전 15.80m)을 31년 만에 15.97m로 경신하였고, 박시훈 선수는 올해 6월 U20 아시아 선수권에서 자신이 수립한 18.70m 기록(당시 대회 3위 입상)을 불과 4개월 만에 19.28m로 경신하였다.



구미고 박시훈



구미고 박소진

★ 전국기능경기대회 최우수 선수 경북소프트웨어고 박민혁



최우수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박민혁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교장 김성완) 소프트웨어개발과 3학년 박민혁 학생은 제58회 충청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직종에 참가해 출전 선수 1,691명 중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북소프트웨어고는 △클라우드 컴퓨팅(금메달, 장려상) △사이버 보안(우수상, 장려상) △웹디자인(우수상, 장려상) △게임개발(장려상) △정보기술(장려상) 등 5개 분야에 참가해 전 종목에 걸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포항명도학교 역도 신동민, 한국 신기록 2개 세우며 3관왕 등극

포항명도학교(교장 김재규)는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도 남자 -60kg급 신동민 선수가 한국 신기록 2개를 갈아치우며 3관왕에 등극했다.

신동민 선수는 2일 전남 영암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역도 남자 -60kg급 스쿼트 경기에서 153kg(종전 152kg), 데드리프트 171kg, 파워리프트 합계 324kg(종전 321kg)을 들어 올리며 지난 한국 신기록 2개를 갈아치우고 3관왕에 올랐다. 여자 -66kg 출전한 남보라(졸업생) 선수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역도 부문에서 금메달 6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포항명도학교 전공과 신동민(좌), 졸업생 남보라(우)

계림고,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전국대회 금상 수상

계림고등학교(교장 남준모) 과학동아리 물리공학탐구반(GSC)은 지난 11월 3일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회 전국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학생대회로 매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과학동아리가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올해 대회는 10월 14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열렸다.

계림고 물리공학탐구반(GSC)은 프로젝트형 연구 활동인 「물리·공학적 원리와 메이커 활동을 통한 2단 추진 물로켓 발사 성공시키기」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물리공학탐구반(GSC)은 계림고의 전통적인 과학동아리로 송오준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1학년 3명(송진우, 이서진, 이주하), 2학년 6명(석윤석, 윤기영, 이서진, 이재진, 이창현, 최인성)으로 구성돼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옥계동부중, 전국스포츠클럽대회 피구 우승

옥계동부중학교(교장 우종원) 3학년 김승연 외 15명 학생들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피구 종목에서 중등부 우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옥계동부중 피구팀이 경북 대표로 출전해 조별리그 1등으로 12강에 진출했다. 대회에 참가한 권용준 학생은 “아침마다 친구들과 모여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고, 승리를 향해서 다 같이 화합하는 순간이 보람됐다.” 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 만들기 동아리로 세상을 보다

영화를 만들며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해요!

성주군 가야산 아래 아름다운 수륜초등학교(교장 박백운)에는 영화 만들기 동아리가 있다. 수륜초등학교는 교과 간 프로젝트 학습으로 4~6학년 25명의 학생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짜며, 촬영에서 편집까지 단편 영화를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 그리고 가을에는 학교에서 가족들과 전교생들 앞에서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수륜초 가을 학생 창작 영화제 개최



'참별이의 습격' 영화 관람



질문에 답변하는 학생들의 모습



수륜초 영화 만들기 동아리가 제작한 영화를 소개해요.

수륜초 영화 만들기 동아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공모 사업으로 운영됐다. 동아리는 4학년 6명, 5학년 9명, 6학년 10명의 학생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며 편집해 총 4편의 영화제작을 완성했다.



4학년 학생들이 만든
'참별이의 습격'

4학년 학생들이 만든 영화 '참별이의 습격'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져주는 영화이다. 선생님이 교실에 도입한 AI 참별이 로봇을 활용하던 학생들이 지나치게 시에 의존하다가 일어나는 부작용과 그 해결 방안이 담긴 이야기를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하게 풀어냈다.

5학년 학생들이 만든
'스위치'



5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스위치'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담은 감동 드라마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뭐든지 잘하는 용진이와 그것을 부러워하는 연우가 어느 날, 몸이 서로 뒤바뀌며 일어나는 소동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의 진지하면서 코믹한 연기와 따뜻한 주제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노력상

6학년 학생들이 만든 'Love Myself'

영화 'Love Myself'는 차별받던 덕순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드라마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구박만 당하던 덕순이는 어느 날 날아온 종이비행기에 'Love Myself'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 날부터 덕순은 개인 방송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영화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자신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6학년 학생들이 만든 'Superman'

참가상

영화 'Superman'은 슈퍼맨처럼 힘든 학생들을 도와주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슈퍼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2023 가을영화제 공모전인 교육사랑연수원 주최의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스위치'가 우수상을, 'Love Myself'와 'Superman'이 노력상과 참가상을 받았다. 동아리 학생들은 받은 상금으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도시문화 체험을 하고, 탄자니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가치' 모금함에 기부도 했다. 영화제 공모전에 참가한 6학년 이민지 학생은 "영화제에서 받은 상금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뿌듯하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구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가을 학생 창작 단편 영화제는 왜 개최하였나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을 학생 창작 단편 영화제를 개최했다. '가을 별빛 영화제'를 통해 가족들을 초대하여 학생들이 만든 영화를 함께 공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다른 학년 학생들이 만든 영화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싶었다.

영화제를 끝낸 후 학생들의 소감문 중에서 4학년 이승원 학생은 "우리가 찍은 영화를 5, 6학년 형, 누나들뿐만 아니라 1, 2, 3학년 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동생들이 영화에 대해 많이 질문해줬을 때 우리가 직접 만든 영화 '참별이의 습격'이 재미있는 영화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말했으며, 5학년 김무현 학생은 "영화가 정말 재밌었고 각 학년 학생이 만든 영화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점이 좋았으며,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동작 연기가 뛰어나 놀랐다."라고 전했다.

가을 학생 창작 단편 영화제는 영화를 직접 만든 학생들에게는 자긍심과 영화를 함께 본 동생들에게는 우리도 내년에는 영화 만들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북돋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영화 만들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5학년 박해진 학생

"스위치를 촬영하면서 아저씨가 연우에게 소원이 이뤄지는 알약을 주면 연우가 알약을 먹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연우가 진짜 알약을 먹는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했고, 누워 있는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웃어서 NG가 많이 나서 기억에 남는다."

5학년 김예승 학생

"작년에 찍은 영화보다 올해 영화에서 내가 더 많은 장면에 등장해서 기분이 좋았고, 야외촬영 중 비가 와서 친구들과 의논해 다음 날로 미뤄야 했다. 영화는 한 장면에서의 화면 연속성을 지켜야 해서 등장인물의 소품이나 날씨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화 만들기 동아리 친구들과 계속해서 의논하고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친구 간에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

수료초 영화 만들기 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영화제작 활동을 통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미디어와 매체'를 다루고 체험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공동의 주제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활동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은 학생들의 성장과 전인적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이 주는 낭만적인 휴가

도촌초등학교 교사 김동현

책의 미로 

'책은 도끼다.'

책의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문장은 19세기 위대한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말이다.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쳐 깨우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할까?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를 간단하게 적은 문장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자아들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얼어붙은 내면의 바다가 깨져 갈라지고,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기 위함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을 만나 '방향'과 '독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노인과 바다」를 읽으며 인생의 실패에도 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다.

단단해지려면 결국 허물어지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허물어지는 경험은 결국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낸다. 내면이 충만한 개인은 타인의 내면 또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작품을 만나며 자신의 자아를 값으로 지급하는 일,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눔의 독서, '행Book Festival'

도촌초등학교는 11월 2일(목)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Book Festival'을 실시하였다. 행Book Festival은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준비한 도촌초 독서 축제다. 축제는 학생의 작품 한 편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친구

도촌초 6학년 박승호

때로는 독서가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독서가 재미가 되고
 때로는 독서가 웃음이 된다.

독서는 또 다른
 친구가 될 수 있다.

시의 표현처럼 '책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 실내 놀이 시설과 푸드트럭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독서 부스(도촌 책빵,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책 표지 가방 만들기, 동화 네 컷, 북 페이스 페인팅)와 체험 부스(지구를 생각하는 샴푸바 만들기, 나만의 냄비 받침 만들기, 도촌 오락실)를 오가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뜻깊은 행사에 학부모님들 또한 곳곳이 클래스, 요리 부스를 운영하시며 Book Festival의 풍성함을 더했다.

'행Book Festival'은 진부한 일상에서 '독서'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처럼 동화 같은 시간이었다.

인생은 짧고, 독서는 길다

사실 책을 읽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다. 또한, 즉각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임, TV 쇼와 달리 가시적인 효용도 없게 느껴진다. 힘겹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도 없다면 왜 우리는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시간 자체에 의미가 있다.

물리학의 용어 중 '특이점'이라는 것이 있다. 특이점의 특성 중 하나는 빅뱅 현상과 같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랜 시간 독서의 지루함을 지나오면 그 지루함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이 독서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막대로 계속 젖다가 한순간에 결정이 생기는 초등학교의 과학실험처럼, 책의 즐거움은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독자에게 올 것이고, 그 이후 독서를 통해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번 주말은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이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시선의 감미로운 부재를 느끼며, 책이 주는 지적 유희를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특파원 TALK



경북교육 특파원 친구들 나와라!

경북교육 특파원?

세계 여러 나라에 특파원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경북교육 특파원'이 있다!

교육의 주인은 언제나 학생들이다. 생생하고 따뜻한 교육활동 소식을 학생들이 직접 전해준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더구나 친구들이 전해준 소식이 방송에까지 나왔으니, 학생들에게도 더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특파원 친구들이 전하는 교실 밖 배움과 성장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무학중 사제동행 QR

함께하면 멀리 간다! 경산 무학중 사제동행 라이딩 현장

무학중에는 자전거동아리 '페달링'이 있다. '페달링'은 올해 자전거 타기의 성지,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렸다. 대구 강정고령보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190km 거리를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전거 타기에 도전했다. 혼자서는 힘들면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여럿이 가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값진 경험이었을 것이다.

< 무학중 특파원 소감 >

무학중 3학년 조성진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전거동아리 '페달링'에 가입해 3학년 때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산 을숙도까지 가는 라이딩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방송 촬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떨리고 긴장하였지만, 같이 자전거를 타는 선생님, 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의 응원으로 그 힘들다는 박진고개와 영아지고개도 함께 넘고, 같이 촬영하는 동생들과의 호흡도 잘 맞춰 촬영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페달링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 서로 응원하고 함께 함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우정을 배웠습니다. 이번 라이딩으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학교 선후배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아리 좌우명인 '함께하면 멀리 간다.'라는 정신을 저의 후배들이 꼭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학중 2학년 지명환

"처음에 박진고개를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다음 영아지고개를 올라갈 때는 숙련이 돼서 그런지 은근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니 기분도 훨씬 좋고 성취감도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산중 대가야 QR



성산중 친구들, 고령 역사 문화탐방으로 내 고장 매력에 빠지다!

고령 성산중 1학년 전체 5명의 친구가 고령 역사 문화탐방에 나섰다. 올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500년 대가야의 숨결이 깃든 고령의 여러 문화유산을 탐방하였다. 독립운동 유적비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독립투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내 고장 매력에 흠뻑 빠졌다.

<성산중 특파원 소감 >

성산중 1학년 유지원

“지금은 지방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반 친구들이 출연한다고 했을 때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국 PD님들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인터뷰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문화해설사님이 문화유산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주셨고, 또 직접 보니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순장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분군이 있는 언덕은 올라가기가 힘들었지만, 막상 올라가니 우리 고장이 한눈에 보여 좋았어요. 가얏고 마을에서 가야금을 만드니 고령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문화재도 구경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방송 출연이란 특별한 경험까지 해 더욱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성산중 1학년 김기현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촬영팀들이 산에도 올라가고 많이 걸어 다니면서 힘들었을 텐데 멋지게 촬영까지 해 주셔서 더욱 감사했어요. 왕릉전시관이나 지산동 고분군 등에 가서 다양한 고령의 역사도 알아보고, 만들고,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본보기가 되는 선행 또는 미담 사례를 함께 나누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에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현재 안타까운 소식들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 얼어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경북교육의 현장에서는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글들을 소개하며 경북교육 현장의 온기를 나눠드리고 싶다.

포항여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신민경, 등록일: 2023. 11. 17.

안녕하세요. 포항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모입니다.
고3 담당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어제 수능이 끝났네요. 수능일까지 아이들을 끝까지 무사히 데리고 와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다는 모르지만 **추영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반 아이들을 어머니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예나 수학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들이지만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학생 하나하나 잘 이해를 잘하는지 체크하신 열정에 응원합니다.
이정희 보건 선생님 고맙습니다. 요즘 성에 대하여 무척 예민한 이 시점에 아이들이 왜 피임해야 하는지 여성 피임이 왜 많은지 재미있고 팩트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교재를 빌려서까지 아이들에게 설명하신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미 송정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연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주희 등록일: 2023. 11. 9.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2학년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큰딸이. 1학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에, 거기에 친구들보다 몸집이 커서 항상 자존감도 무너지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아이입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서 체력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라 면역력이 부족하고 지금은 1형 당뇨, 비만으로 간약도 먹고 경대 병원을 한 달에 2번 정도 갑니다. 그 과정에 친구를 못 사귀고 항상 곁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무 관심 가져 주시고, **위클래스 쌤, 김현진 보건 쌤께서 울 딸에게 아주 잘해주셔서 한층 밝아졌습니다.** 저도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상담 쌤에게 연락받고 보건 쌤한테도 들었습니다. 정말 담임 선생님이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다면 울 딸은 중학교 가서도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6학년 1반 담임 쌤, **김연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포항 학천초등학교 전미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은성 등록일: 2023. 10. 13.

저희 아이는 자가면역질환인 1형 당뇨가 있는 아이입니다.
 세심한 관리와 지침이 필요하고, 갈수록 자신도 잘 해내려 하지만 미숙함이 많은 4학년 아인데요.
 저희 선생님은 어쩌면 부모의 마음처럼 저희 아이를 돌봐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서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 체험 학습을 하러 가는 날인데 아이와 같은 조로 이동해 주며 신경 써야 할 일을 먼저 물어봐 주시는데 선생님을 보며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야겠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바르게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요.
 평상시 수업 이야기만 들어도 열정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연경 보건 선생님, 정창극 교장 선생님과 노삼용 교감 선생님께서도 아픈 아이를 많이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학생, 저런 학생 별의별 일들이 많았을 텐데 세심히 신경 써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려요!





초 6학년을 위한 '중학교 가는 길'

2024 중학교 입학 앞둔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 '중학교 가는 길' 전체를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중학교는 배워야 할 교과가 다양해지고 1일 수업시간도 길어집니다.
1학년 한 학기 동안에는 자유학기 활동도 이루어진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알아보고 지혜롭게 배움을 채워가 봅시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을
중학교에서는 사회, 역사 과목으로 배워요.

학교스포츠클럽활동과 연계한
체육활동이 더 많아져요.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과목이 있으며, 학교마다 1~3개 과목을 배워요.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이 골고루 운영돼요. 한 학기 동안 170시간
이상 운영되며 학교에 따라 운영 방법과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40분 수업에서 45분 수업으로 5분이 더 길어지네!

초등학교에는 없던 역사, 기술·가정, 정보, 선택 교과들을 새로 배우는구나!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5~6교시였던 수업이 6~7교시로 늘어나!



초등학교 실과 과목을
중학교에서 기술·가정, 정보 과목으로 배워요.

문법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1년에 2번 영어듣기능력평가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증진하며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중 3학년을 위한 '고등학교 가는 길'

2024 고등학교 입학 앞둔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 '고등학교 가는 길' 전체를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고등학교는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기초 소양을 기르기 위해 모두가 똑같이 배우는 공통과목과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선택해서 배우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중학교와 같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알아보고 배움이 행복한 나만의 교육과정을 준비해 봅시다.

01 수업시간이 50분으로 길어져요.

수업시간은 중학교 때보다 5분이 더 긴 50분이에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주당 165분, 연간 5,610분
(평균 94시간)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요.

02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요.

매 학기 평균적으로 교과는 29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3학점으로
32학점을 이수하여 3년간 6학기 동안 교과 174점,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으로 192학점을 이수해야 해요.

03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요.

1학년 때는 누구나 배워야 하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
부터는 배우는 과목을 선택해요. 1학년 때 선택해서 2, 3학
년 때 배우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위해서 자기 진로를 탐색해
보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학점은 주당 수업 시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국어 4학점은 매주 국어 수업이 4시간이라는 뜻이죠!

고등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전년도에 비해 주당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중학교 주간 시간표 33시간 보다 시간 적은 32시간으로 편성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주당 34시간도 가능해요.



04 학생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1학년 때는 같은 학급 친구들과 배우는 과목이 같기 때문에 시간표가 같아요. 2학년 부터는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같은 학급 친구와도 시간표가 달라요.

05 학업성취율 40% 미만은 보충과정을 이수해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4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보충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06 대학 진학 준비는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담은 기록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록을 통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성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1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학업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담아보세요.



겨울에 듣는 포근한 우리말 이야기

겨울과 관련된 순우리말 단어



눈설레

눈이 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현상
- 이레째나 짓궂던 눈설레가 갠 터라, 유난히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설눈

설날에 내리는 눈



흰그루

지난겨울에 곡식을 심었던 땅



폭하다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
- 겨울답지 않게 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겨우살이

겨울 동안 먹고 입고 지낼 옷가지나 양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날씨가 쌀쌀해지자 모두 겨우살이 장만으로 분주하다.



서리꽃

유리창 따위에 서린 김이 얼어서 꽃처럼 엉긴 무늬



눈석임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스러짐. ‘눈석임물’은 쌓인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



매듭달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로, 12월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손돌이추위

음력 10월 20일 무렵의 심한 추위
- 고려 시대에 임금이 탄 배의 사공인 손돌이가 풍파를 피하여 가자고 하다가 의심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후로 10월 20일 무렵이면 그 원한으로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진다고 한다.

우풍? 옷풍? 외풍?

겨울에 방 안의 천장이나 벽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찬 기운을 가리키는 정확한 말은 무엇일까?

- 정답은 -) ‘옷풍’ (옷바람)
- 흔히 쓰는 ‘우풍’은 잘못된 표현이다.
- 외풍(外風)은 한자 뜻 그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 따라서 방 안에 스며드는 ‘찬 기운’을 표현하는 말은 ‘옷풍’이다.

고드름 단어의 유래

곳어름(18세기)>고도름(18세기)>고두름(19세기)>고드름(20세기~현재)
 현대 국어 ‘고드름’의 옛말인 ‘곳어름’은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곳어름’은 “곧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곧-’과 ‘얼-’, 명사 파생 접미사 ‘-ㄹ’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의 ‘고두름’에서 원순 모음의 반복을 피하고자 ‘ㄱ’이 ‘-’로 바뀌어 20세기 이후 ‘고드름’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겨울과 관련된 순우리말 단어

- ❄️ **겨울을 지내보아야 솔이 푸른 줄 안다**
 - 푸른 것이 다 없어진 한겨울에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뜻으로, 위급하거나 어려운 고비를 당하여 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눈 온 뒤에는 거지가 빨래를 한다**
 - 눈이 온 다음 날은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빨아 입을 만큼 따스하다는 말
- ❄️ **싱겁기는 고드름장아찌라**
 - 사람이 아주 멋없고 몹시 싱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고드름장아찌: 말이나 하는 일이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 ❄️ **겨울 화롯불은 어머니보다 낫다**
 -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제일 좋음을 이르는 말

※2023 겨울호의 모든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소통망(SNS)에 놀러오세요!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